

간호학사의 업무기대감과 진로계획의 영향요인

염현이¹, 신지원^{2*}

¹충남대학교 간호학과, ²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related to job expectations and career planning of nursing students

Hyun-E Yeom¹, Jee-Won Shin^{2*}

¹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졸업 직전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D시와 K시 소재 두 개 대학의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 255명이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2016년 1월4일부터 1월7일까지 수집되었다. 자료는 SPSS와 AMOS를 사용해 기술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bootstrapping을 활용한 SPSS macro,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는 업무기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롤 모델의 유무에 따라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졸업 후 진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했으나, 전공만족도가 업무기대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간호역량성취도가 졸업 후 진로계획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기대감이 간호역량성취도와 향후 진로계획 간의 관계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을 위해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업무기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임상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롤 모델을 형성하고, 향후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동기와 목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tudy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career planning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the associ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academic major, perceived professional competence, and job expectations. Data from 255 nursing students were colle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s on 2016 January 4 and 7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s, bootstrapping SPSS macro and path analysis using AMO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competence, and job expectations. Both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job expectations, but their effects on job expect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re was a role-model, which support a moderating effect of having a role-model. Majo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areer planning, but its indirect effect on career planning through job expectations was not significant. Professional compete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areer planning, but its indirect effect on career planning through job expectations was significant. Overall,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roviding educational support and opportunities for nursing students to explore their own motivation and to have a role-model during pursuit of a nursing career.

Keywords : career choice,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role, professional competenc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Jee-Won Shin (Taegu Science University)

Tel: +82-53-320-1759 email: Jwshin@tsu.ac.kr

Received November 23, 2017

Revised (1st December 18, 2017, 2nd December 27, 2017)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은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간존중의 윤리적 태도 형성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 병원간호사회의 통계보고에 따르면, 간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12.4%로[1] 우리나라의 평균 이직률이 4.3%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2]. 특히 입사한지 1년 이내인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33.5%로 일반간호사의 두 배에 달하고[1], 이직의도를 갖고 있는 비율도 전체의 69%를 차지하여 타 직종이 30%인 것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3]. 이러한 간호사의 이직은 간호교육의 비용효과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의료간호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사의 이직은 자신의 적성, 업무수행력, 대인관계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개인적,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4], 최근 신규간호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적인 경험과 상충될 때 발생하는 현실충격이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5,6].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업무수행태도 및 업무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이는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의 업무기대감은 향후 실제적인 간호업무를 위한 수행력과 만족감과 관련될 수 있는 요소이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경력개발 등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학생들이 갖고 있는 업무기대감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이러한 업무기대감과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대학생활은 향후 직업인으로써의 역할이행을 앞두고 세심한 진로결정과 적극적인 진로준비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이다[9,10]. 간호학생은 타전공자들에 비해 졸업 후 취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8]. 그러나 단순한 취업의 이점 때문에 간호학과에 진학한 경우, 자신의 진로적성에 대한 고민이나 졸업 후 경력설계를 위한 탐색이 부족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될 위험이 있다. 간호학 전공자는 졸업 후 임상분야 뿐 아니라 산업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기회가 많으나, 실제 간

호학생이 갖고 있는 졸업 후 진로방향이나 계획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제한적이다.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한 불충분한 성찰은 향후 업무적성과 관련된 내적갈등으로 유발하여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실제 임상현장에서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도는 교육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 즉 전공 교과 학습내용, 교수 및 학생 상호간의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진학 동기와의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이러한 전공만족도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의 집중력과 수행태도, 더 나아가 역량형성을 위한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수행할 전공영역에서의 업무에 대한 기대감과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1].

한편, 간호사는 전문화된 간호술기 수행의 기술적 역량을 비롯해, 환자와 보호자, 동료를 포함한 병원 내 다양한 구성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교육에서는 이러한 업무특성을 기반으로 지식, 기술, 태도영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차원적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과 실습교육 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나 간호역량성취도에 대한 인식이 졸업 후 수행하게 될 간호업무에 대한 기대감이나 향후의 진로계획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간호사 이직에 대한 연구는 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간호학생들이 갖고 있는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에 대해 연구된 바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 직전 간호학생의 간호역량성취도, 전공만족도, 업무기대감을 중심으로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졸업 직전 간호학생들의 진로계획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된 요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의 정도와 진로계획의 특성을

파악한다.

- 2)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4)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 직전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여 적합성을 파악하고, 제시된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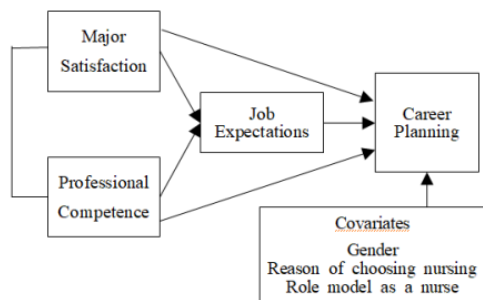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K시에 소재하는 두 개 대학 간호학과 졸업 예정인 간호학생 255명으로, 비확률 표본추출 중 이용가능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되었으며 2016년 1월 4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설문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편감으로 참여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과 자료수집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한 후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고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총 261명의 대상자가 설문에 응했으나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내용이 누락된 6부를 제외한 후 25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진학동기, 이론 및 실습 전공교육과정에서 경험한 특성과 관련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다양한 전공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6문항으로 개발된 도구[12]를 간호전공에 대해 수정·보완한 4문항으로 측정했다. 각 문항은 지식성장, 적성적합, 학습경험, 취업 및 진로준비의 측면에 대해 1점(매우 만족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산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간호역량은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전반적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조합하여 적절한 태도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간호역량으로 보고, Choi[14]가 간호과정 적용, 간호기술, 의사소통 수행 영역에 대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문항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성취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한편, 간호역량성취에 가장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 다지 선다형 문항으로 “이론수업, 실습경험, 교수와의 상담이나 지도, 인터넷이나 서적, 선배나 교우의 조언, 봉사 등 교외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업무기대감은 앞으로 수행하게 될 간호직무에 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인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문항으로 졸업 후 병원에서 수행하게 될 간호업무에 대한 기대감의 정도를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업무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실제 간호업무수행, 원하는 병원에 취업성공, 원하는 지역에 근무,

학생신문에서 벗어남, 경제활동 시작의 다섯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향후 진로선택의 특성은, 향후 임상분야에서 지속적인 경력을 쌓을 계획인지의 유무, 졸업 후 계획하고 있는 세부진료분야, 지원하고 싶은 근무부서 등에 대해 총 13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역량성취도, 전공만족도, 업무기대감,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 간의 관계는 t-test로,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과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적 특성(성별, 진학동기, 롤모델 유무)에 따른 조절효과는 regression 분석에서 bootstrapping을 활용한 SPSS macro 방법[15]으로 분석하였다.
- 4)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bootstrapping을 활용한 SPSS macro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5) 가설모형적합도 평가는 Chi-square, 표준카이제곱(Minimum, Chisquare: CMIN)/DF 통계량, 중분적합지수로서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간명적합지수인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d of Approximation [RMSEA])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은 여학생이 225명(88.2%), 남학생이 30명(11.8%)이었고, 평균연령은 23.5세(SD=3.52)였다. 간호학과 진학동기는 '취업이 유리하기 때문'이 104명(40.8%), '주변의 권유'가 69명(27.1%), '어릴 적부터의

꿈'이 49명(19.2%), '간호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33명(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다수인 232명(94.9%)이 간호사 중 롤모델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대상은 '실습 시 만난 간호사'가 171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가 36명(14.1%), '사회유명인사'가 17명(6.7%), '간호사인 선배나 친구'가 12명(4.7%), '간호사인 가족'이 6명(2.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2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0	11.8
	Female	225	88.2
Reasons of choosing a nursing major	Academic interest	33	12.9
	Job	104	40.8
	Recommendation of others	69	27.1
Nurse role-model	Long-term dream	49	19.2
	Practical nurse	171	67.1
	Professor	36	14.1
	Person with a good reputation	17	6.6
	School senior or colleague	12	4.7
	Nurse in the family	6	2.4
	None	13	5.1

Table 2. Planned career fields after graduation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lan for working years in a hospital	As short as possible	7	2.7
	1-3 years	2	0.8
	3-5 years	53	20.8
	5-10 years	38	14.9
	As long as possible	76	29.8
Future fields planned for career development	Will decide after beginning work	75	29.5
	No plan	4	1.6
	Hospitals	97	38.0
Future fields planned for career development	Healthcare officer	38	14.9
	Research and academic	19	7.5
	Healthcare companies	14	5.5
	Community nurse	18	7.1
	Healthcare personal business	11	4.3
	Healthcare teacher	6	2.3
	None	38	14.9
Others	14	5.5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향후 병원에서의 근무하려는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8%가 가능한 길게 근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나, 이와 비슷한 수준인 29.5%가 일해보고 난 후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졸업 후 진로분야로는 병원임상분야가 38%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 공무원이 14.9%였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4.9%로 나

타났다. 한편, 전체 대상자 중 180명(70.6%)이 병원 입사 시 지원하고 싶은 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병동 68(37.8%), 중환자실 36명(20.0%), 응급실 33명(18.3%), 신생아실 및 NICU 15명(8.3%), 아동병동 12명(6.7%), 분만실 및 산과병동 10명(4.0%), 외래 및 기타 6명(3.3%)의 순이었다.

3.2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의 관련요인

업무기대감은 평균 3.34(SD=1.14)점이고,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실제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120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가 82명(32.2%), ‘희망하는 곳에 취업’이 18명(7.1%)이었으며 ‘학생신분을 벗어나게 되어서’는 12명(4.7%)이었다.

간호역량성취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2.93(SD=1.23)점이었다. 간호역량형성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실습경험’이 177명(69.4%)으로 가장 높았고, 이론수업은 32명(12.5%), ‘교수와의 상담’은 30명(11.8%), ‘선배나 교우 간의 대화’ 8명(6.3%), ‘봉사 등 교외활동’ 8명(6.3%)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평균 3.41(SD=1.08)점이고, 가장 큰 이유로 ‘취업에 도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1명(31.8%), ‘학문적 지식성장’이 65명(25.5%), ‘적성에 적합’이 41명(16.1%), ‘다양한 학습경험’이 28명(11.0%)으로 나타났다.

업무기대감, 간호역량성취도,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육이수과정 중 간호사로서의 롤 모델을 찾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업무기대감, 간호역량성취도, 전공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진학동기가 취업이나 주변권유에 따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업무기대감과

전공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Table 3. Factors related to perceived professional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and job expectation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competence		Job expectation	
		M	t or r	M	t or r	M	t or r
Gender	Male	3.40	.46	2.90	1.29	3.33	.28
	Female	3.50		3.10		3.40	
Reason of choosing nursing	Others	3.67	2.68*	3.02	1.20	3.56	2.06*
	Job	3.29		2.90		3.24	
Nurse role model	Yes	3.50	2.71*	2.98	2.30*	3.44	3.17**
	No	3.04		2.70		2.87	

*p < .05 **p < .00

3.3 업무기대감에 대한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의 영향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은 모두 상호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업무기대감은 간호역량성취도(r=.402, P=.000), 전공만족도(r=.475, P=.000)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역량성취도와 전공만족도(r=.306, P<.000)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업무기대감에 대한 성별, 간호학과 진학동기의 영향을 통제한 후, 전공만족도(B=.810, p=.001)와 간호역량성취도(B=1.370, p=.000)는 업무기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은 롤 모델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B=-.971, p=.017), 롤 모델이 있는 경우에 비해 롤 모델이 없는 경우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달랐으며, 이것은 간호역량성취도와 업무만족도의 관계가 롤 모델의 유무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은 롤

Table 4.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n job expectations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on job expectations			Professional competence on job expectations		
	B	SE	p	B	SE	p
Gender*	.154	.212	.467	.180	.210	.309
Reason of choosing nursing**	.063	.134	.635	.079	.133	.551
Role-mode***	1.746	.831	.036	3.225	1.198	.007
Major satisfaction or professional competence	.810	.251	.001	1.370	.400	.000
Interaction with role-model: major satisfaction or professional competence	-.426	.256	.097	-.971	.407	.017

* 0=Male, 1=Female; ** 0=For job, 1=Academic interest; *** 0=No, 1=Yes; **** 0=Hospitals, 1=Other fields except hospit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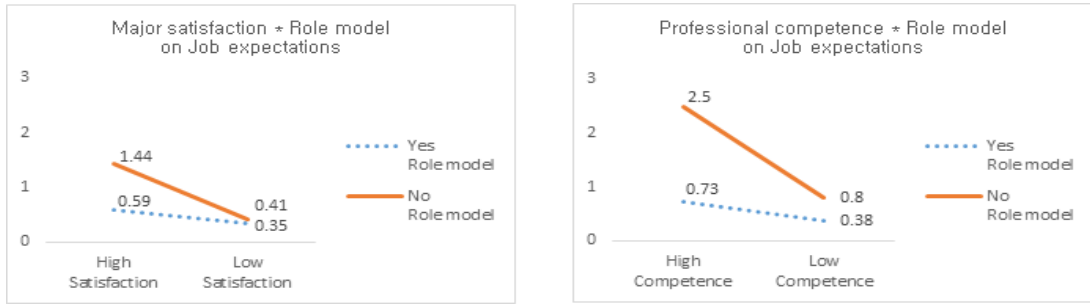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s of role model on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n job expectations

모델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426, p=.097$). 이러한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이 롤 모델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3.4 진로계획에 대한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의 영향과 업무기대감의 매개효과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진로계획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기대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간호역량성취도가 진로계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B=.004, p=.982$),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031,.401]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하므로[15], 간호역량성취도와 진로계획의 관계에서 업무기대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진로계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했으나($B=.358, p=.010$), 전공만족도가 업무기대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039, .272]이 0을 포함하므로 전공만족도와 진로계획의 관계에서 업무기대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15].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Chi-square=7.419($p=.284$), NFI=.95, CFI=.98, RMSEA=.03으로 적합도 기준($\chi^2 p>.05, CFI, NFI>.90, RMSEA<.10$)을 충족했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job expectation on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n career planning

Dependent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lanning ^{††††}			Professional competence on career planning ^{††††}		
	B	SE	p	B	SE	p
Gender [†]	.169	.490	.729	.151	.490	.757
Reason of choosing nursing ^{††}	.663	.289	.021	.720	.286	.012
Role-mode ^{††††}	.270	.621	.663	.289	.616	.638
Major satisfaction or professional competence	.267	.151	.077	.004	.196	.982
Job expectations	.208	.142	.144	.308	.138	.026
Sobel test for indirect effect through job expectations	-1.62	.013	.104	2.127	.018	.003
Bootstrap result for Indirect effect through Job expectation	.103	.079	-.039, 272	.186	.094	.031, .401

† 0=Male, 1=Female; †† 0=For job, 1=Academic interest; ††† 0=No, 1=Yes; †††† 0=Other fields except hospitals, 1=Hospitals

4. 논의

간호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졸업 후 임상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지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을 중심으로 이들 간 관련성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졸업 직전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은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간호역량성취도에 대한 인식과 전공만족도는 업무기대감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고 간호역량성취도가 높은 경우 업무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는 전공만족도가 학업성취도와 관련되며 관련 전공분야의 업무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9,14,15]. 또한, 전공만족도 가 낮을 경우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대감은 감소하고, 그 결과 실제 업무수행에 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11].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공교육과정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간호사의 롤 모델을 찾는 경우가 롤 모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이러한 롤 모델의 유무에 따라 전공만족도나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롤 모델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전공만족도나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열정적이고 적극성을 띤 성공적인 간호전문가와의 접촉을 통해 진로를 진취적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지지하고, 멘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학생들의 간호사 롤 모델의 대상은 실습교육에서 만난 간호사가 전체의 67.1%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간호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실습교육이 실무역량의 향상 뿐 아니라 간호직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호학 실습교육 시 실제적인 수행기회의 부족, 관찰중심의 실습, 실무 간호사와 학생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의 제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

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선후배 간 멘토십 활동, 다양한 분야의 간호전문가와 만남 등 실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간호사로서의 롤모델을 접하고 간호업무에 대한 기대감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역량성취도에 대한 인식은 업무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졸업 후 진로계획에서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역량성취도가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업무기대감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졸업 전 간호학생이 향후 병원임상분야가 아닌 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는 것은, 간호역량성취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않지만,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향후 진로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업무에 대한 만족감은 기대했던 바가 충족될 때 높으며 이것이 이직의도 등 향후 경력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지지한다[11,18]. 이것은 간호학생의 업무기대감이 향후 간호사 업무수행과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졸업 전 학생의 업무기대감이 졸업 후 실무 간호사로서 간호업무 수행 및 경력설계를 위한 의지나 계획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생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진로준비와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실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는데[19],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간호학생들 중 30% 이상이 이미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얼마나 일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여 간호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진로설계가 불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4%가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간호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경력설계에 대한 보다 진중한 탐색과 성찰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간호연구에서 졸업 후 임상적응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간호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된 바는 많지 않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생의 진로지도는 취업을 목표로 한 획일화된 방향성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의 진학동기를 바탕으로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향후 수행할 간호업무에 대한 동기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도 강조되어야 하겠다. 간호학생이 자신의 진로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탐색적 성찰과정을 통해 전문직으로써의 간호업무수행의 동기가 강화되고, 더 나아가 향후 실무현장에서 겪게 되는 현실과의 괴리감과 갈등을 줄임으로써 간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성취도, 전공만족도, 업무기대감을 중심으로 졸업 후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지도와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취업이 확정된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2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호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간호역량성취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기대감이 높았다.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간호교육과정에서 찾은 간호사의 롤 모델이 있는 경우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롤 모델의 유무에 따라 전공만족도나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롤 모델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업무기대감은 전공만족도나 간호역량성취도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간호영역에서 롤 모델의 대상을 탐색하고 수립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졸업 후 진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전공만족도가 업무기대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간호역량성취도가 졸업 후 진로계획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진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기대감이 간호역량성취도와 진로계획 간의 관계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교육과정을 통해 업무기대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간호역량성취감과 전공만족도 향상은 업무기대감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모색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교육적 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일개 두 지역에서 편의표집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진로계획과 관련된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을 고려하였으나 이들 변수 외에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인관계, 심리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들에 대해서도 그 영향과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학생들의 업무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간호학생의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rean Hospital Nurse Association. Study the Real State of the Hospital Nurses Arrangement Situation, *Seoul: Korean Hospital Nurse Association*, 2016.
- [2] Korean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 (accessed November, 28, 2017)
- [3] H.M. Yun and J.S. Kim.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Global Health and Nursing*, vol. 2, pp. 52-61, 2012.
- [4] M. Baernholdt, B.A Mark, "The nurse work environ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rates in rural and urban nursing unit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17, pp. 994-1001, 2009. DOI: <https://doi.org/10.1111/j.1365-2834.2009.01027.x>
- [5] M. Kramer, "Reality shock; why nurses leave nursing", *CV Mosby, Saint Louis*, 1974.
- [6] K.M. Shin, J.O Kwon, E.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New Graduate Nurses' Reality Shock",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pp. 292-301, 2014.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4.20.3.292>
- [7] H. N. Choi, H.S. Bae, Y.S. Cho, "Effect of Gap between Expected Job and Performed Job on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1, pp. 463-469, 2011.
- [8] J.A. Kim, "Affecting Factors of Career Satisfaction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3, pp. 339-349,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4.339>

- [9]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 Health Serv Res Policy*, vol. 12, No.1, pp. 46-51, 2007.
DOI: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10] S. J. Ka,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2013.
- [11] J.S. Jeong, M. J. Jeong, I.Y. Yu,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pp. 27-36,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27>
- [12] M. M. Nauta,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5, pp. 446-462, 2007.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7305762>
- [13] B. Campbell, G. Mackay, "Continuing competence: An Ontario Nursing Regulatory Program that Supports Nurses and Employers",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25, pp. 22-30, 2001.
DOI: <https://doi.org/10.1097/00006216-200101000-00006>
- [14]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15] K. J. Preacher, A. F. Hayes,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0, pp. 879-891, 2008.
DOI: <https://doi.org/10.3758/BRM.40.3.879>
- [16] M. S. Kim,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pp. 159-167,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2.159>
- [17] T.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4.
- [18] S.Y. Lee, E.J Oh, K.M. Seong, "The Experiences of Turnover Intention in Early Stage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9, pp. 168-176, 2013.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3.19.2.168>
- [19] S.K. Lee, J.K. Lee, "The Eff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Majored College Women Graduates' Job Preparation Behavior on Types of Their Employment Status and Workplaces", Soongsil University: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21, pp. 1-25, 2008.

염 현 이(Hyun-E Yeom)

[정회원]



- 2010년 8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간호학 박사)
- 2017년 9월 ~ 현재: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자가간호, 만성질환, 건강증진, 간호교육

신 지 원(JeeWon Shin)

[정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 박사수료)
- 2011년 9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재난간호, 간호교육